
2016년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

2016. 3월



강 원 도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I . 국외연수개요 1

- 연수목적 / 2
- 연구기간 / 2
- 연수국가 / 2
- 주요 연수활동 사항 / 2
- 연수단 구성현황 / 3
- 연수 세부일정 / 4

II . 주요 연수활동 5

- (2.12.) 캄보디아 톤레삽 수상학교 방문 / 6
- (2.13.)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방문 / 9
- (2.15.) 태국 한인회 방문 / 13
- (2.16.) 태국 파타야 시의회 예방 / 15
- (2.16.) 태국 파타야 장애인특수학교 방문 / 18
- (2.17.) 태국 방콕 소방본부 예방 / 21

III . 시사점 및 느낀점 24

[참고자료] 언론보도자료 30

2016년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국 외 연 수 개 요

I 연 수 개 요

■ 연수목적

- 국외연수를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해외 지방정부의 행정·교육·복지분야 등 도민생활과 연관된 정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자,
- 사회·문화·역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폭넓은 안목과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향후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 활동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 연수기간

- 2016. 2. 11.(목) ~ 2. 18.(목), 6박8일

■ 연수국가

- 캄보디아(씨엠립), 태국(방콕, 파타야)

■ 주요 연수활동 사항

- 캄보디아 톤레삽 수상학교 방문 및 학용품 전달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방문 및 식료품 전달
- 태국 한인회(재태국춘부리지회) 방문 및 성금 전달
- 태국 파타야 시의회 부의장 친선 예방
- 태국 파타야 장애인 특수학교 방문 및 생필품 전달
- 태국(방콕) 소방본부 예방, 재난안전 시스템 청취 및 체험

연수단 구성현황 : 11명

○ 의원 9, 수행공무원 2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한 글	영 문		
1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HAM, JONG KOOK	남	
2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CHOI, SUNGHYUN	"	
3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기홍	KIM, KI HONG	"	
4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구자열	GU, JA YEAL	"	
5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신영재	SHIN, YOUNGJAE	"	
6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오세봉	OH, SEBONG	"	
7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임남규	LIM, NAMKYU	"	
8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최명서	CHOI, MYEONG SEO	"	
9	강원도의회	의장	김시성	KIM, SI SUNG	"	
10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김광수	KIM, KWANGSU	"	
11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주무관	최승명	CHOI, SEUNGMYUNG	"	

■ 연수 세부일정

일 자	방문국	교통편	시 간	일 정	비고
제1일 2.11.(목)	인 천 씨엠립	KE687 대한항공	18:30 22:15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씨엠립(캄보디아) 국제공항 도착	
제2일 2.12.(금)	씨엠립	전용차량	09:00 15:00	▶ 앙코르왓 사원, 타프롬 사원 견학 ▶ 톤레삽 수상학교 방문 - 학용품 및 기념품 전달	
제3일 2.13.(토)	씨엠립 방 국	전용차량 PG914 방콕항공	11:00 15:35 16:50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방문 - 식료품(쌀 200kg) 및 기념품 전달 ▶ 씨엠립(캄보디아) 국제공항 출발 ▶ 방콕(태국) 수완나 국제공항 도착	
제4일 2.14.(일)	방 국 파타야	전용차량	09:30 13:30 16:00	▶ 위마맥 궁전, 아만다사막콤(옛 국회의사당) ▶ 방콕 출발 ▶ 파타야 도착	
제5일 2.15.(월)	파타야	전용차량	09:00 14:00	▶ 산호섬 견학(해양 스포츠 체험) ▶ 재태국한인회 춘부리지회 방문 - 간담, 동계올림픽 홍보 및 성금 전달	
제6일 2.16.(화)	파타야	전용차량	09:30 11:00 14:00	▶ 악어농장 견학 ▶ 파타야 시의회 예방 - 간담, 동계올림픽 홍보 및 성금 전달 - 파타야시 강원도 방문일정 협의 ▶ 장애인 특수학교 방문 - 학교운영 현황 청취 및 생필품 전달	
제7일 2.17.(수)	파타야 방 국	전용차량	10:00 12:00 15:00	▶ 파타야 출발 ▶ 방콕 도착 ▶ 태국(방콕) 소방본부 예방 - 태국 재난안전 시스템 청취 - 소방안전 장비 체험 및 시연 관람	
	방 국	KE658 대한항공	21:45	▶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출발	
제8일 2.18.(목)	인 천		04:5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2016년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연수 활동

II

주요 연수 활동

2월 12일(금) : 캄보디아 톤레삽 수상학교 방문



톤레삽(Tonlesap) 호수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호수로 캄보디아의 젓줄 역할을 하는 곳이다. 우기와 건기에 따라 호수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수위가 가장 낮은 5월에는 호수 면적이 2,500km²에 불과하지만 히말라야에서 눈이 녹는 우기에 접어들어 메콩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프놈펜에서 역류한 물까지 호수로 유입되면 2개 가까이 커진다.

현재 호수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적도 없는 베트남 사람들로 호수의 수위에 따라 가장자리로 수상 가옥을 이동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2월은 건기로 보트 2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수심이 낮았다.

○ 이동경로 : 숙소(씨엠립) → 앙코르와트 사원 → 톤레삽 호수(수상학교)

○ 주요활동

- 수상학교 방문 및 관계자(교사)와의 대화
- 수상학교 학생들에게 학용품 전달 및 기념촬영

주요 대화내용

- ▶ (관계자) 이 곳 수상학교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함. 또한, 이곳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학용품인데 필요한 용품을 기부해 주어서 정말 감사함.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음.
- ▶ (연수단) 일단 방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함. 아이들에게 학용품이 도움이 된다니 정말 다행이며, 힘든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함.

※ 수상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유선전화나 상주하는 관계자가 없어 캄보디아 현지 가이드를 통해 방문의사를 밝혔음. 현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 대화를 짧게 끝낼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았음.

[수상학교 방문 후기]



▸ 호수 선착장에서 수상학교까지 우리 연수단을 실어 나르는 보트에는 선장과 선원 1명이 타고 있었다. 그 중 선원 1명은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선장의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한창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아이들과 뛰어 놀아야 하는 나이에 왜 배에 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이의 대답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받는 것보다 기술을 배워서 일찍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다.

▸ 톤레삽 호수 위에 있는 수상학교에 도착하니 아이들로 시끌벅적했다. 오전에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수업을, 오후에는 방과 후 수업으로 크마메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 아이부터 10대 청소년까지 함께 수업을 듣는다.

우리 연수단은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수업이 끝나는 오후 4시30분에 방문을 했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눈을 반짝반짝이며 연수단을 맞이하는 모습이 참 예뻐고 행복해 보였다.



▸ 캄보디아의 교육제도는 한국과 같이 6-3-3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교복이 있어야만 학교에 갈 수 있음. 즉,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교복을 살 수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란 매우 힘든 상황임.

▸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 캄보디아 수상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연수단은 수상학교를 뒤로 하고 돌아가는 배 안에서 우리나라 아이들과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해 누가 더 행복한 환경에 있을까를 주제로 논의함.

[수상학교 방문 사진]



▲ 툰레삽 호수 위에 떠있는 수상학교



▲ 수상학교 관계자와의 대화



▲ 수상학교 관계자에게 기념품 전달



▲ 수상학교 학생들과의 기념촬영



▲ 수상학교 학생들에게 학용품 전달

■ 2월 13일(토)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방문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방문 및 식료품 전달(2.13.)

○ 이동경로 : 숙소(씨엠립)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주요활동

- 식료품(쌀 200kg) 및 간식 전달
- 다일공동체 관련 홍보자료 시청 및 관계자(자원봉사자) 간담

주요 대화내용

- ▶ (관계자) (다일공동체에 대한 설명 및 홍보영상 시청 후) 먼저 대한민국 강원도의회에서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함. 대한민국에서는 단체를 비롯하여 개인적으로도 후원 및 봉사를 해 주시고 있음. 다시 한 번 방문과 후원을 감사드립니다.
- ▶ (연수단) 보다 많은 후원품을 준비 못 해서 죄송함. 어떤 보수도 받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 강원도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음. 힘드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해 여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힘내시기 바람.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만난 봉사자는 중국에서 온 자원봉사자인데, 한국말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우리 연수단을 안내해 주었고, 현지 봉사자를 통해 다일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음. 연수단 방문일에는 급식과 수업이 없어 아이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음.

다일공동체 소개

○ 기 관 명 : 다일공동체(The DAIL Community, 多一共同體)

○ 설립시기 : 1989년 9월 10일

○ 설립목적 :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료 급식

○ 기관개황

- ▶ 굶주린 이들을 위해 '밥퍼 나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회복지단체로 1988년부터 하루 800~1,000명에 달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하고 있다. '다일(多一)'이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파와 교리와 이념을 초월한 영성생활과 봉사생활을 함으로써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 ▶ 나눔운동으로 행려자, 독거노인, 무의탁노인, 알콜중독자 등에게 매일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해주고 도시락을 배달해주며, 천사운동으로 다일천사병원에서 행려자, 무의탁 노인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한다.
- ▶ 2000년대 들어서는 해외로 눈을 돌려 네팔, 캄보디아, 중국 등에서 '밥퍼'운동을 벌이고 있다. 구순구개열 어린이를 치료해주는 사역, 교육 사역, 고아원 사역으로 활동 영역도 넓히고 있다. 미국에서는 애틀랜타에 미주 다일공동체를 설립해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한 후원 및 미국 내의 노숙자 재활 사업도 벌이고 있다. 산하에 다일평화인권연구소, 다일교회, 다일공동체 본원, 수련원, 자연치유센터 등이 있다.

○ 목표와 실천지침



목표 1.
일용할 양식 나눔

실천지침

인종과 나라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밥 굶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진지를 차려 드립니다.



목표 2.
전인적 치유와 회복

실천지침

이 땅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다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인간존중 실현과
생명나눔촉진의 삶을 위해 전인적 치유와 인간성 회복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건설해갑니다.



목표 3.
섬기는 리더 양성

실천지침

참 교육의 실현으로 건강한 인재를 육성해 아름다운 사회,
통일조국 건설과 인류평화를 위해 이바지하며 죽임의 문화를 넘어서서
살림의 문화로 기독교 문화를 뿌리 내릴 섬기는 리더를 양성합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방문 후기]



▶ 우리 연수단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2004.3.17. 설립) 방문을 결정하고 위문품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던 중 다일공동체의 대표적인 사업인 ‘밥퍼’를 상기하여 식료품(쌀 200kg)으로 결정하였다.

다일공동체에 도착하여 식료품(쌀 50kg, 4포대)을 나르며 힘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줄 밥이라 생각하니 피로감도 곧 잊혀졌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은 급식과 수업이 없는 날(캄보디아 명절기간)이라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만 만날 수 있었다.

▶ 다일공동체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관계자(봉사자)와의 간담을 실시했다. 캄보디아 학교에서는 교과과목에 영어, 체육, 미술, 음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을 통해서만 교육이 가능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는 영어, 태권도, 탁구 수업을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밥퍼, 빵퍼, 꿈퍼 등의 다양한 물품 및 재능기부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급식은 일주일에 2회, 월요일과 금요일에 실시하는데, 급식을 실시하면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다. 급식판을 받아가면 먹지 않고 가져온 비닐봉투에 밥과 반찬을 담아가는 아이, 자기보다 어린 동생에게 먼저 밥을 먹이고 남은 밥만 먹는 아이 등 자기보다 먼저 가족을 생각하는 성숙함에 저절로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함.

▶ 어느 나라나 결연아동, 결식아동들은 있기 마련임. 모든 아이들이 모두 배부르고, 모두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이 필요함.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방문 사진]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방문 기념촬영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홍보동영상 시청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관계자와의 간담



▲ 식료품 및 간식 전달



▲ 아이들에게 간식 직접 나눠주기

■ 2월 15일(월) : 태국 한인회(재태국한인회 촌부리지회) 방문

○ 이동경로 : 숙소(파타야) → 산호섬 → 재태국한인회 촌부리지회

○ 주요활동

- 재태국한인회 성금 전달
- 재태국한인회 촌부리지회 지회장(김동민) 간담

주요 대화내용

- ▶ (한인회) (인사말) 태국한인회 촌부리지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함. 이국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한국인이 겪는 어려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음. 하지만 한인회를 중심으로 교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잘 헤쳐 나가고 있음.
- ▶ (연수단) (인사말) 우리 연수단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함. 먼 이국땅에서 생활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음. 특별한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한인회) 촌부리지회 지회운영비가 부족하여 교민지원에 어려움이 많음. 한인회비를 거두었으나 어느 교민이 파타야에 한국인 마피아가가 있어 강제로 돈을 징수한다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은 사건 이후 회비를 걷을 수가 없었음.
또한, 태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자가 태국 현지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후 도피할 경우 그 아이는 한인회에서 맡아서 보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 (연수단)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임. 그 외에 재태국 한인과 관광객에게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인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함.
- ▶ (한인회) 애로사항을 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함.
- ▶ (연수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함.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국땅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한인들에 대해 고민하겠음.

[태국 한인회 촌부리지회 방문 사진]



▲ 태국 한인회(재태국한인회 촌부리지회) 방문(2.16.)



▲ 재태국한인회 촌부리지회와의 간담 #1



▲ 재태국한인회 촌부리지회와의 간담 #2



▲ 재태국한인회 촌부리지회와의 간담 #3



▲ 성금전달

■ 2월 16일[화] : 파타야 시의회 예방

○ 이동경로 : 숙소(파타야) → 악어농장 → 파타야 시의회

○ 주요활동

- 파타야 홍보동영상 시청 및 시의회 부의장 간담
-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주요 대화내용

- ▶ (부의장) (홍보동영상 시청 후 인사말) 파타야 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함.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파타야는 ‘동양의 최고 휴양지’로 세계적인 관광지임. 방콕에서 2시간 거리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음. 지내시는 동안 파타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기 바람.
- ▶ (연수단) (인사말) 우리 연수단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함. 우리 연수단은 대한민국 강원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의원소개 후)
- ▶ (부의장)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태국은 눈이 없는 나라이지만 참가하고 싶어 대한민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선수단도 구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음.
- ▶ (연수단)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함. 선수단이 구성되면 연습장소 제공 등의 협조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음. 현재,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드림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눈을 구경할 수 없는 국가의 청소년을 평창으로 초대하여 스키체험 등을 통해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임.
- ▶ (부의장) 좋은 프로그램임. 우리 파타야 시의회도 동계올림픽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니 이번 연수단과의 만남이 향후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를 희망함.
- ▶ (연수단) 언제든지 환영하며,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음.

[파타야 시청 및 시의회 예방 후기]



▶ 우리 연수단은 파타야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였다. 이날은 태국한인회 춘부리지회 지회장(김동민)도 동행하였다. 우리 연수단을 파타야 시의회 부의장(쿤 토, 4선의원)이 맞이해 주었다.

부의장으로부터 파타야 시의회 현황 및 의장단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파타야 시의회는 임기 4년 동안 의장단을 한 번만 구성한다고 한다.

간담 내내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위트있는 간담을 진행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 ▶ 부의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우리 연수단은 적잖이 놀라기도 했고 흐뭇하기도 했다. 눈을 전혀 구경할 수 없는 태국에서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보이고, 더 나아가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힐 때는 강원도를 대표하여 감사를 표했다. 또한 부의장은 2월 23일부터 2월 26일(4박5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가능하면 평창 올림픽시설을 견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우리 연수단은 방문일정을 이메일로 알려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안타깝게도 연결이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 ▶ 파타야 시의회 부의장과의 간담을 통해 파타야 시의회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의회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으며, 본회의장과 시청사의 민원실, 재난종합상황실은 우리나라와 유사함.
- ▶ 비록 눈을 구경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참가희망의사가 있는 것을 판단하였을 때 국·내외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지속적이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파타야 시청 및 시의회 예방 사진]



▲ 파타야 시청 및 시의회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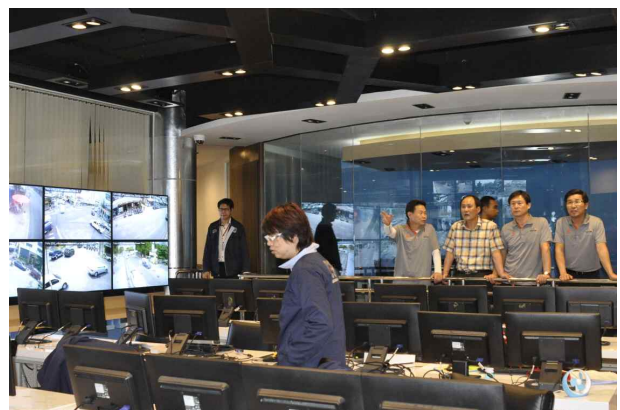
▲ 파타야 시의회 부의장 감담



▲ 파타야 홍보동영상 시청



▲ 파타야 시의회 본회의장 견학



▲ 파타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 견학

■ 2월 16일[화] : 파타야 장애인특수학교 방문

파타야 장애인특수학교는 레이 신부(Father Ray)가 1974년에 레이재단(Father Ray Foundation)을 설립하여 고아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다.

현재 학생수는 850명으로 파악되며, 주로 고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이다.



▲ 장애인특수학교 홍보 전단지

○ 이동경로 : 파타야 시의회 → 장애인특수학교

○ 주요활동

- 장애인특수학교 견학 및 관계자(교사)와의 간담
-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전달

주요 대화내용

- ▶ (관계자) (인사말) 저희 장애인특수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함. 저희 학교는 레이 신부님(Father Ray)께서 1974년 파타야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장애인특수학교’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학생들은 고아, 버림받은 아이들,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런 불쌍한 아이들에게 독립된 삶을 살 수 있게 지식을 전달하고, 직업기술을 가르치고 있음.
- ▶ (연수단) (인사말) 우리 연수단의 방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함. 현재 학교 학생수가 850명에 달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함.
- ▶ (관계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는 주로 컴퓨터 공학, 정보통신에 대해 많은 교육을 하고 있음.
- ▶ (연수단)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을 지원해주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많음.

[파타야 장애인특수학교 방문 후기]



▶ 우리 연수단이 장애인특수학교를 방문한 날은 교실수업이 없고, 야외에서 정신수양에 관한 수업을 듣는 날이어서 아쉽게 수업참관은 할 수 없었다.

야외수업은 언뜻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승려복을 입은 스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역시 불교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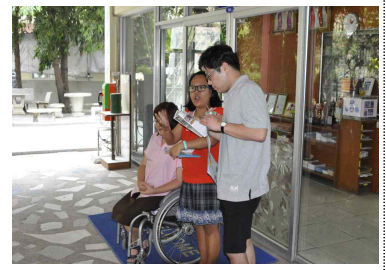
우리 연수단을 맞이하여 준 관계자도 역시 몸이 불편한 분이셨는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 관계자의 장애인특수학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이후 연수단원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통역을 위해 학교측 영어가능자가 동반되었고, 연수단에게는 김기홍 의원이 통역을 하였다.

학교 교과과정이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있고, 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에 대한 수업이 많다고 하였다. 이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직업학교와 비슷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었다.



▶ 장애인 관련 기관을 방문할 때면 항상 비장애인인 것에 대해 왠지 모를 미안함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파타야 장애인특수학교를 방문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하지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이 장애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편하게 대해주는 것이라고 함.

▶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키워 떳떳하게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서 누가 진정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됨.

[파타야 장애인특수학교 방문 사진]



▲ 파타야 장애인특수학교 방문 기념 촬영



▲ 장애인특수학교 관계자와의 간담 #1



▲ 장애인특수학교 관계자와의 간담 #2



▲ 장애학생들을 위한 생필품 전달



▲ 장애학생들과의 놀이교육 견학

■ 2월 17일(수) : 방콕 소방본부 예방

○ 이동경로 : 파타야 → 방콕 → 소방본부

○ 주요활동

- 방콕 소방본부 홍보동영상 시청 및 본부장과의 간담
- 방콕 소방본부 장비체험 및 시연 관람

주요 대화내용

- ▶ (본부장) (홍보동영상 시청 후 인사말) 저희 방콕 소방안전본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함.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방콕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방콕시에는 고층건물이 많아 화재시 초동 대처가 미흡하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임.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은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고 있음.
- ▶ (연수단) (인사말) 우리 연수단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함. 우리 연수단은 대한민국 강원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의원소개 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 소방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임. 2004년 쓰나미 이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콕 소방본부에서는 각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대한민국도 결코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절대 안전 지대는 아님.
- ▶ (본부장) 지난 2015년 9월 칠레에서 규모 8.3의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었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이 마무리 되었음. 항상 쓰나미에 대비하고 있음.
- ▶ (연수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저희 강원도의 입장에서도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테러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어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
- ▶ (본부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잘 알고 있음. 국제대회인 만큼 안전을 대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임. 다시 한 번 방콕 소방본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연수단) 우리 연수단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함.

[방콕 소방본부 예방 후기]



▸ 우리 연수단은 방콕 소방본부를 방문하여 재난안전 시스템에 관한 동영상 시청 후 본부장(아파치)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본부장은 소방본부 조직과 조직구성원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설명해 주는 모습에 감탄하였다. 간담 중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고,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대회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간담회를 자연스럽게 진행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방콕 소방본부에는 아시아 최대 길이를 자랑하는 고가사다리 장비를 언급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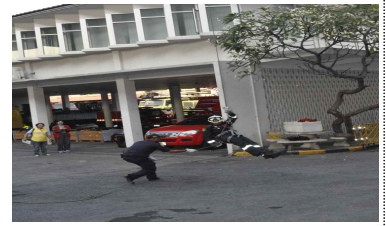
▸ 소방안전장비 체험을 위해 광장으로 이동 중 우리 연수단의 체험을 위해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한쪽에는 최신 소방안전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가장 인기있는 것은 고가사다리를 타고 지상 90m를 올라가 방콕 시내 전역을 볼 수 있는 체험이었다.

하지만 높이가 높이인 만큼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연수단 전원이 탈 수는 없어서 일부 연수단원만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아쉬웠다.

▸ 아파치 방콕 소방본부장은 사건현장에서 실시되는 고가사다리 위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시범을 직접 시연하였다.



- 방콕 소방본부를 방문하면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도 권위의식이 없이 실무자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임.
- 우리나라 공무원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직급·직위를 가지게 되면 권위의식, 매너리즘에 빠져 일선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경우가 있음.
- 국가의 운영을 맡아 공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방콕 소방본부 방문 사진]



▲ 방콕 소방본부 방문 기념촬영(2.17.)



▲ 아피차 본부장과의 감담회



▲ 고가사다리 체험 준비



▲ 고가사다리 체험



▲ 아피차 본부장 시연

2016년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 사 점 및 느 낀 점

III 시사점 및 느낀점

■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와 정치

“정치 지도자의 철학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120억불에 달하는 공적 개발원조(ODA)¹⁾를 제공받은 개발도상국 즉, 수원국(受援國)이었다.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던 개도국 한국은 짧은 기간 안에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이룩한 공적 개발원조의 성공사례가 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되었으며 2000년 DAC²⁾ 수원국 리스트에서도 제외되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후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을 때 식량을 무상 원조할 만큼 소위 제법 잘 사는 국가였다. 하지만 폴 포트³⁾가 이끈 크메르루즈 정권⁴⁾이 1976년에 집권하면서 지식인을 대량학살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등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보복정치로 캄보디아의 국가 기반을 붕괴시켰다.

1979년 베트남 군대와 연합한 캄푸치아 민족구국통일전선(KUFNS)에 의해 폴 포트의 크메르루즈가 태국 국경 근처로 쫓겨나면서 폭정은 그 막을 내렸다. 하지만 강력한 정권이 붕괴되면 늘 그렇듯이 캄보디아는 크메르루즈 잔당과 친베트남, 반베트남 3개 계파로 분열되어 1991년 파리평화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10년간 내전을 겪는다.

- 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공공개발원조·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2)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공여 정책에 대한 상호 협의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1년 현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3개국과 유럽공동체(EU)이다.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에 가입이 결정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 3) 폴 포트(Pol Pot, 크메르어: ព៉ុល ពត, 1925년 5월 19일 ~ 1998년 4월 15일)는 캄보디아의 독립운동가, 노동운동가, 군인, 정치인이자 사회주의 혁명가이다. 본명은 살롯 사(Saloth Sar, 크메르어: សាឡុត ស)이다.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정당이었던 크메르 루주의 지도자이자 1976년에서 1979년까지 민주 캄푸치아 공화국의 총리였다. 집권 기간 중 지주, 자본주의자, 반대파 200만 명을 숙청하였고, 기타 강제 이주책과 노동책, 흉년, 기근을 위시한 질병으로 국민 다수가 아사했다. 재임 기간 원리주의적 공산주의에 따라 집단농업화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여 많은 국민을 심문과 고문으로 죽게 한 소위 킬링필드로 유명하다. <출처 : 위키백과>
- 4) 크메르루즈(Khmer Rouge)는 ‘붉은 크메르’라는 뜻으로 1967년에 결성되어 1975년 4월 수도 프놈펜을 장악함으로써 정권장악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폴포트가 이끈 크메르루즈정권의 4년간에 걸친 통치기간은 20세기 어느 좌파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함과 무자비한 보복으로 얼룩졌다.<출처 : 두산백과>

4년간의 폭정과 10년간의 내전으로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1997년 훈 센⁵⁾이 제1수상으로 취임하면서 적극적인 시장 개발 정책을 근간으로 빠른 속도로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캄보디아는 여전히 저개발국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철학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외세를 배척하고, 자국의 노력만으로 국가를 재건하려 노력하였지만, 그 방법론에서 한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캄보디아의 수상학교와 다일공동체 방문은 우리 연수단 개개인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치자나 정치가의 철학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정치가가 느껴야 할 책임의 막중함과 사고의 신중함에 대해 새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가의 미래와 교육

“아이들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이다.”

캄보디아 국가 기반의 붕괴 후 재건의 속도를 더디게 했던 것은 교육의 부재가 큰 요인이었다. 폴포트의 지식인 대량학살로 인해 캄보디아인들은 ‘배움=죽음’과 직결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 캄보디아인들이 자녀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캄보디아 수상학교와 다일공동체에서 만난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되새겨 보게 된다.

5) 훈 센(크메르어: ហ៊ុន សែន, Hun Sen, 1952년 8월 5일 ~)은 現 캄보디아의 총리로, 캄보디아 인민당(CPP)의 핵심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자 정부를 1993년 다당제를 회복한 이후로 왕당파와 연합하여 캄보디아를 통치한 실질적인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다. <출처 : 위키백과>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경제발전과 인적자원개발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장기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現 대한민국 정부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즉 창의인재와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⁶⁾)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⁷⁾를 표명했다.

창조경제는 무엇보다도 지식 자산이 핵심인 경제로 전환하는 사회 변화의 새로운 비전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존 아이디어에 새로운 기술을 융·복합하여 전혀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융·복합 기술을 사업화하여, 창업이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주요 핵심동력은 창의인재로써 창의성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및 교육과정 개편’, ‘산업계 수요 중심의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및 학위과정과 수업 연한 다양화’, ‘지방거점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역인재 유치 및 활용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 ‘대학 유형과 여건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성화’등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교육을 통해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창의인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사업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6)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는 창조경제의 기반이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물 인터넷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연결, 사물과 사물의 연결도 가능하게 한다. 창조의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개인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보완해야 진정한 창조경제를 만들 수 있다.

7) <출처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https://www.creativekorea.or.kr/town/introduce>>

현재 창의인재 육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대학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면 창조경제의 성과는 더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해 보며, 강원도의 경우 누리과정 정상화부터 한발 한발 나아가 창의교육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창의인재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성공적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

“세계인의 축제가 되기 위하여”

태국 파타야 시의회 부의장과 소방본부 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많은 관심에 놀라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다. 눈을 구경할 수 없는 국가에서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있고, 더 나아가 경기에 참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 개최지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강원도만의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로, 세계인의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 연구, 각종 포럼 개최, 사후활용방안,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포럼 등 올림픽 붐 조성과 환경·경제·문화올림픽을 위해 올림픽 관련 운영 및 홍보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성공개최 이후 각 시설물의 활용방안, 올림픽 개최에 따른 실질적인 지역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기록경신을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건강관리, 치안유지 등 세심한 준비도 필요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적 동계스포츠 이벤트로서 개최 기간 동안 설 연휴 교통량과 함께 국내·외 관람객 통행수요 등을 파악하여 지능형 교통체계와 동계올림픽 선수 수송체계를 고도화 하여야 한다.

또한, 대내·외적 올림픽 홍보를 위하여 동계스포츠가 활성화되지 않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동계스포츠 종목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우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드림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다. 두 번 다시없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강원도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언 론 보 도 자 료

☞ 홈 > 뉴스 > 정치·행정 > 정치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 의원들 국외연수 비용 기부 ‘훈훈’

김시성 의장, 함종국 위원장, 최성현 부위원장 등 9명 봉사와 기부로 선행

2016년 02월 17일 (수)

유지원 기자 ☞ yjw52102001@hanmail.net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경제신문=한국인터넷기자클럽.강원도/유지원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태국에서 국외연수를 시작하고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연수는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시절, 미국과 함께 가장 먼저 한국에 군사와 식량 등을 원조했던 태국을 선택한 것에 그 의미가 크다.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첫날 공식일정에서 파타야 시의회를 방문, 강원도의회 초청으로 23일 동계현장을 방문하는 현지 부의장과 의원들에게 2018동계올림픽 홍보와 봉사기금을 전달했다.

또,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장애인학교와 캄보디아 수상가옥학교, 한국 다일 밥퍼공동체 등을 방문해 대한민국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학용품과 식료품, 생필품도 전달했다.

강원도의회 국외연수비 예산편성액은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 16위로 기초의회 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의원들의 국외연수 중 불가피하게 자부담을 해 현지에서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강원도의회 의원들, 국외연수 중 자부담 비용 기부 '훈훈'

김시성 의장, 함종국 위원장, 최성현 부위원장 등 9명 봉사와 기부로 선행

김을규 기자 | 승인/2016.02.17 22:07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아이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태국에서 국외연수를 시작하고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연수는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시절, 미국과 함께 가장 먼저 한국에 군사와 식량 등을 원조했던 태국을 선택한 것에 그 의미가 크다.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첫날 공식일정에서 파타야 시의회를 방문, 강원도의회 초청으로 23일 동계현장을 방문하는 현지 부의장과 의원들에게 2018동계올림픽 홍보와 봉사기금을 전달했다.

또,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장애인학교와 감보디아 수상가옥학교, 한국 다일 밥퍼공동체 등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학용품과 식료품, 생필품도 전달했다.

한편, 강원도의회 국외연수비 예산편성액은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 16위로 기초의회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의원들의 국외연수 중 불가피하게 자부담을 하여 현지에서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현지 물품구입비용과 기부금 등을 의원 개인별로 자부담하여 전달하는 등 타 시·도의 해외연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귀감이 되고 있다.

김을규 기자 ek8386@naver.com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 > 뉴스 > 뉴스 > 이슈

[허문영 칼럼] 강원도의회, 의원들 국외연수예산 전국 최하위!! 도민들 인식 변화해야..!!

-도 의원들 예산부족으로 선진국 국외연수는 불가, 후진국 홍보, 봉사와 기부만 진행 -

2016년 02월 17일 (수) 23:54:44

허문영 기자 ☞ sun001@newssun.kr



▲ 사진설명 : 강원도의회 국외연수 중 자비를 기부하여 현지인 아이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고 있다.

[칼럼=한국인터넷기자클럽] 허문영 칼럼 = 강원도의회에서 시행하는 의원들 국외연수 예산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취재를 하면서 나타났다.

도 의원들의 국외연수는 강원도의 발전에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의원들의 견문과 선진국의 기술과 문화, 예술, 과학산업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도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몇몇 국내 대다수 지역구 의원들의 관광형 연수로 변화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것이 언론 등에 매를 맞으며 국외연수가 부정적 영역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말았다.

대구시의 한 구의원은 지역구가 도시재정비촉진지역으로 선정되자, 다른 한 명의 의원과 함께 일본 오사카와 교토의 재개발현장을 견학하기로 계획하고 담당공무원과 관련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자료

를 준비하고, 한정된 국외여비로는 가이드나 현지통역을 쓸 수 없기에 제일 유학생과 제일동포를 물색하여 도움을 받는 방안을 찾아 해결한 사례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발전을 이뤄야 될 지역으로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다른색으로 볼 것만이 아니며, 의지 및 가능성이 있는 의원을 선정하여 필요한 나라를 지정, 기술과 정보 등을 받아들이야 한다.

강원도의회는 도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강원도발전과 이익이 생기는 국외연수라면 개인별 200만원 예산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책정하고 기술과 정보를 강원도 발전에 이용하면 된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예산 부족으로 후진국을 전전하며 봉사와 기부, 개인사례금을 걸어서 현지민들에게 부족한 용품들을 조달하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

강원도의원들이 봉은 아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한 만큼 강원도에 이익을 주면된다. 그것이 국외연수가 필요한 이유라 생각한다.

홈 > 뉴스 > 뉴스 > 정치

[단독]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 국외연수 중 자부담 기부 선행!! 훈훈!!

- 김시성 의장, 함종국 위원장, 최성현 부위원장 등 9명 봉사와 기부로 선행 -

2016년 02월 17일 (수) 01:06:51

허문영 기자 ☞ sun001@newssun.kr



▲ 사진설명 :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아이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뉴스연합통신 허문영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태국에서 국외연수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연수는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시절, 미국과 함께 가장 먼저 한국에 군사와 식량 등을 원조했던 태국을 선택한 것에 그 의미가 크다.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첫날 공식일정에서 파타야 시의회를 방문, 강원도의회 초청으로 23일 동계현장을 방문하는 현지 부의장과 의원들에게 2018동계올림픽 홍보와 봉사기금을 전달했다.



▲ 사진설명 :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장애인학교와 감보디아 수상가옥학교, 한국 다일 밥퍼공동체 등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학용품과 식료품, 생필품도 전달했다.

한편, 이번 연수에서는 현지 물품구입비용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의원들이 일정 중 개인 자부담 비용을 기부하고 행사(봉사과 기부)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훈훈한 모습도 보였다.

강원도의회 국외연수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기초의회 보다 열악한 환경이 의원들의 국외연수 중 불가피하게 자부담 비용을 현지에서 기부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 홈 > 뉴스 > 뉴스 > 포토뉴스

[포토뉴스=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 의원들 공무국외연수 통해 따뜻한 강원 알리기 성공!!

- 성공적인 공무국외연수를 위해 자부담 기부 및 봉사 등 실시 -

2016년 02월 18일 (목) 17:14:18

허문영 기자 ☞ sun001@newssun.kr



▲ 사진설명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캄보디아와 태국 현지에서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



▲ 사진설명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캄보디아와 태국 현지에서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



▲ 사진설명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캄보디아와 태국 현지에서 강원도를 알리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 : 최성현 의원, 구자열 의원!!

[포토=한국인터넷기자클럽] 뉴스연합통신 허문영 기자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11일 - 18일까지 캄보디아와 태국에 강원도를 알리기 위한 공무국외연수를 진행 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와 현지 의원들 초청, 강원도민 이름으로 생필품과 물품전달, 봉사, 기부 등을 진행하여 도민들로 부터 성공적인 연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HOME > 라이프 > 미담 > 로컬뉴스

강원도의회 국외연수, 자부담 비용기부 귀감되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시성 의장 등 9명 봉사와 기부로 선행

이항범 승인/2016.02.18 08:29

[웰빙코리아뉴스] 이항범 기자, 한국인터넷기자클럽 공동 =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연수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연수가 귀감이 되고있다.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태국에서 국외연수를 시작하고 공식일정에 들어가며 훈훈한 미담이 알려졌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국외연수비 예산편성액은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 16위로 기초의회 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의원들의 국외연수 중 불가피하게 자부담을 하여 현지에서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현지 물품구입비용과 기부금 등을 의원 개인별로 자부담하여 전달하는 등 타 시·도의 해외연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태국 연수는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시절, 미국과 함께 가장 먼저 한국에 군사와 식량 등을 원조했던 태국을 선택한 것에 그 의미가 크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아이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 = 강원도의회 제공)

한편,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첫날 공식일정에서 파타야 시의회를 방문, 강원도의회 초청으로 23일 동계현장을 방문하는 현지 부의장과 의원들에게 2018동계올림픽 홍보와 봉사기금을 전달했다.

또,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장애인학교와 감보디아 수상가옥학교, 한국 다일 밥퍼공동체 등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학용품과 식료품, 생필품도 전달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 해외연수서 훈훈한 나눔 실천

기사등록 일시 : [2016-02-21 15:16:06]



【춘천=뉴시스】 박혜미 기자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함종국)가 해외 연수 중 현지주민들과 한인들을 위한 선행을 실천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행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6박8일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와 태국(파타야, 방콕)에서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김시성 도의회 의장이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나섰다.

의원들은 캄보디아 공식일정 첫날인 12일 톤레삽 호수 수상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을 전달했다.



다음날인 13일에는 '밥퍼'목사로 잘 알려진 최일도 목사가 운영하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DAIL Community of Cambodia)'를 방문해 식료품(쌀 200kg)등을 전달했다.

15일은 태국 파타야로 이동해 재태한인회 춘부리지회(지회장 김동민)를 방문, 한인들의 현지 생활실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평창올림픽 홍보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16일에는 태국 파타야시 시의회를 방문해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파타야시의 강원도 방문 일정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파타야 장애인 특수학교를 방문해 장애학우들을 위한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공무국외연수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태국 소방본부(본부장 아피차)를 방문해 태국의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방장비 체험을 한뒤 기념품을 전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기행위 소속 위원들과 김시성 의장 개인 자부담으로 기부물품과 성금을 마련해 봉사를 추진했다"며 "강원도의회 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포토뉴스]도의회 기행위 캄보디아에 사랑의 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함종국)는 지난13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자비로 마련한 쌀 200kg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